

“한국 부유계층 세금 대폭 늘려야”

‘비전 2030 포럼’ 미래전략 논의 북한·고령화 등 도전과제

한·미·일 3국의 국가비전 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 해외홍보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 포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미국형 복지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정책총괄 책임자인 제이슨 보도프 브루킹스연구소 박사,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의 경제정책 청사진 책임자인 고사이 유타카(香西泰) 일본경제연구원 특별고문, 그리고 우리나라 ‘비전 2030’ 프로젝트 비전총괄팀의 우선식 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세계화와 한국의 현주소=자크 아탈리는 “세계화는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화는 힘의 중심을 태평양 동쪽으로 이끌 것이며, 앞으로 기술력과 사회의 역동성, 개방성을 갖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두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 2030’ 국제포럼에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국가비전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화와 한국의 현주소=자크 아탈리는 “세계화는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화는 힘의 중심을 태평양 동쪽으로 이끌 것이며, 앞으로 기술력과 사회의 역동성, 개방성을 갖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두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 및 통일 위협”,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조화로운 사회문제” 등을 3대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 변명에 재앙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이 ‘형제’인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화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불류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장과 분배 ‘동반전략’=제이슨 보도프

박사는 “경제 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해진다”면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감이 뒷받침돼야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재난에 직면해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안정성, 즉 복지와 경제성장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상호강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충돌한다는 논리를 전면 반박했다.

아탈리는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뒤 “대선이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는 전략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비전 2030”을 긍정 평가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비전 2030’과 관련, “방법론,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복지에 치우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며, 국민의 합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비전 2030”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민주당, 아직도 주먹질인가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개혁 종갓집으로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폭력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 동구 K지역위원회이 중앙당 사회의식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배기운 사무총장에 폭력을 휘두른 데 이어 며칠 전에는 당직을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김도 전 조직위원장이 중앙위원직 상설과 관련 배기운 사무총장에 항의하면서 책상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지켜보던 부위원장이 폭력을 휘둘러 전직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이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당에서의 우발적 폭력 사태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민주당의 폭력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화갑 대표 시절, 김재두 부대변인은 소위 한 대표 측근들로부터 ‘건방지다’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았고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이 광주 북을 C지역위원장 등 일부 당원에게 폭행당한 일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돼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에서의 폭력 사태는 빈번하게 벌어졌으며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확대됐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중앙당에서 당원에게 먹살이 잡혔는가 하면 친 고건과였던 신중식 의원은 지난 연말 당 대표실에서 모 부위원장으로 부터 “네가 언제부터 민주당원이었냐. 차라리 당을 떠나라”라는 폭언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일부 간부급 당원들이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다면 당내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일부 당직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털어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당이 정계개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회의를 중앙당사가 아닌 국회 대표실에서 종종 개최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봉변을 우려해 당사 찾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쉬쉬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는 등 단호한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당은 광주 동구 K지역위원장의 폭력 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개최,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사건이 매듭지어 진다면 민주당은 구해 정치의 운상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당원 모집때 ‘무술 유단자 우대’라는 조건을 내세워야 할 지도 모른다”는 한 당직자의 쓴웃음이 슬프게 들린다.

/tuim@kwangju.co.kr

변호사·회계사 “공무원 되고파”

취업난 가중 대거 지원... 요약능력 테스트 등 자질검증 확대

정부 부처에 취업하려는 변호사·회계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변호사·회계사는 100페이지 보고서 3페이지로 요약하는가 하면, 10시간 내에 특정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처 취업 전형 형을 받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사법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검찰·법원 외에 연봉수준이 높은 로펌, 기업, 회계법인 등에 주로 취업했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재경부는 변호사 10명, 회계사 2명을 선발하는데 변호사 119명, 회계사 6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처는 응시생들의 경쟁이 치열하자 주제를 제시하고 10시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등 검증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도 변호사(또는 자격증소지자) 4명 채용에 40명이 몰렸으며 현재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련법이 40여 개에 이르는 데다 법률 행정 해석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살자의 호 가당찮다”

여야 ‘일해공원’ 명칭변경 비판

여야는 1일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숲 공원’의 이름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합천군수와 군의원 대다수가 소속된 한나라당이 “일해공원은 부적절한 명칭”이라는 입장을 밝히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일해공원’ 명칭변경을 밀어붙이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쟁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새 ‘새천년 생명의숲 공원’이라는 좋은 이름 대신 학살자의

호를 불러려 하지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명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5.18 학살의 책임자이자 군사 쿠데타의 주동자이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합천군이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일해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5년 전통의 **학교법인 안동대학교** 연구 개발한

장생·무늬 오가미 식물

비밀의 전산정보를 활용한 무늬 오가미 식물은, 생명 연장, 암 예방,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노화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이므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TEL: 062-385-3303, 362-66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이시원/시정명/김지현/김주영/이원국/최대규 등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25개 지점 배신

교수진 전임 서울에서 출장! • TV방송출연 교수진/차차차

2월 1일 입학정원 30명 • 전액 무료 수험생 12만 50명 선발은 목표

합격률 1위! 새총 행정고시학원 ☎ 361-8111

공인중개사

신국수석 배출 전국최대합격자 배출

21년 전통의

주택관리사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 327-8100

등불!

한국의 전통문화인 불교의 상징인 등불은, 자비, 지혜, 평화, 번영을 상징하며,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TEL: 1062-262-0101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얼핏보면” 원목화선, 천연난방이 핵심입니다.

TEL: 1062-262-0101